

청소년기 발달단계를 중심으로 한 간호 중재

김 명 애
〈전주 간호전문대학 교수〉

성숙단계와 질병반응을 고려한 간호의 시간
—청소년 발달단계를 중심으로—

1.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
 2. 청소년의 성장발달
 3. 청소년의 질병반응을 고려한 간호중재
- 〈참고문헌〉

인간의 복지와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지어 주는 것이 간호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간발달에 대한 지식이 초점을 맞춤으로서 전인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여러 발달단계중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질병반응을 고려하여 간호의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위해 먼저 인간발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한후, 대표적인 발달단계 이론을 다루어 보겠다.

인간 유기체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인 기본요구물 지니고 있으며, 신경계나 내분비계등 주요 계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기능하지 못하며, 질병으

로 인해 신체조화에 불균형을 초래할 때에도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반응한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할때는 전체로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부분 정지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발달하는 것이다. Koffka는 「발달은 유전적인 내재법칙에 따르는 것이며,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작용하는 변화의 과정」이라 하였다. 유전적 내재법칙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의해 수정되는 유전자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을 이해할 때에는 현재의 상태에서 뿐만아니라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과 수정때부터의 모든 경험을 고쳐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을 성숙단계에 따라 이해하는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인간발달은 한 발달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수정에서 죽을때 까지 일어나는 과정으로 광범위한 기틀 내에서 모든 다른 인간과 같은 성장법칙을 가지고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인간발달의 단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Piaget, Freud, Erikson,을 들수 있다. Piaget은 인지적 발달단계를 제시하였고, Freud는 성심리적 견지에서 발달단계를 서술하였으며, Erikson은 Freud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사회심리적 견지에서 인간발달에 관한 명백한 이론을 내세웠다. Erikson은 인간발달을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인 事象의 지속적인 경험에 기초를 둔 진화과정으로 보았다. 이와같이 인간을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주장한

발달단계의 과업을 중심으로 질병반응을 고려해 보는것은 타당한 일이라 하겠다. 그는 인간의 생의 주기를 8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는 전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것이며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때와 실패하였을때 정반대의 인성특징이 형성되는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개인의 발달은 그의 유전적인 자질, 즉 체질과 환경에 달려있으며 이때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각 단계 발달과업을 성취했다고 해서 개인의 성취를 보장하는것은 아니고, 생을통해 계속 강화되거나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를 할때 이상과 같은 Eri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각 발달단계별 중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지지해 주는것은 인간을 전체로서 다루는 것이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질병반응을 고려한 간호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발달의 단계는 보통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한다. 따라서 발달기에 따른 질병반응을 고려한 간호시안을 제시하는 일은 중요하다.

2. 청소년의 성장발달

청소년기는 사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8~10년을 일컬으며 아담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격변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청소년기는 그 이전의 발달단계를 통해서 성취된 모든것을 통합하고 또 주체성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를 경험하는 형태는 대개 유아기의 발달양상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아개념 및 신체상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하는 성적인 성숙과 함께 신체성장의 변화가 마지막으로 크게 나타난다. 청소년기를 사춘기와 청년기로 나누어 이를 신체적 발달과 사회심리적 발달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신체적 발달 : 사춘기는 출생후 영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이다. 특히 내분비의 커다란 변화에 의해 상당한 생리적인 변동이 있다. 성기판이 완숙되어 성기능이 가능하게 되고 2차적 성징이 뚜렷하게 나며 골격이 발달하고 급격한 신체성장으로 신체비율이 달라진

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장은 늦어지고 몸의 균형의 변화는 더 서서히 일어난다. 보통 15~16세가 되면 생식이 가능해지는 청년기에 이른다. 이때의 운동능력은 성인과 비슷해져 근육의 조절과 기술을 요하는 일들을 할수 있게 된다. 청년기 말쯤되면 젊은이들은 신체적으로 성인처럼 보인다. 이상의 많은 신체의 변화에 따라 커다란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사회심리적 발달 : Erikson에 의하면 사춘기는 주체성(혹은 동일시감)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아동기까지 성취된 발달과업을 통하여 주체성을 형성한다. 급격한 신체성장과 신체상의 변화로 부자연스러워하며 강한 자의식을 갖는다. 또한 성적인 충동과 공격적인 충동으로 정신적인 혼란이 온다. 이 시기에 자기역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체성의 상실로 인해 자기의 무용성, 주목적성동에 대해 고민하게된다. 주체성이 완성되는 것은 청년후기에 이르러서이며 영향력 있는 성인의 지지를 받으면 혼란을 줄일수 있다.

사춘기에 주체성을 발달시킨 후에 젊은이는 자기와 동성 또는 이성의 사람들과 친밀감을 가지게 된다. 친밀감이란 자기자신을 타인에게 의탁할수 있으며 이런 관계를 계속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친밀감은 또한 성격기능의 완성에 있어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고립상태에 들어가 타인과의 사이에 냉정하고, 고정되고, 형식적인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즉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다음 다섯가지 중요한 발달과제를 중심으로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발달과제는 첫째, 장애의 책임을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키는것, 둘째, 그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이탈하는것, 셋째, 이성과의 사이에 만족할만한 관계를 성립시키는것, 넷째, 이 시기에 일어나는 급속한 신체적 변화후에 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것, 다섯째, 성인으로서 가질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청소년기

의 주체성과 친밀감형성에 수반되는 발달상의 요구이다.

3. 청소년의 질병반응을 고려한 간호중재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발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질병반응을 다각태 보고 간호중재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청소년기의 질병반응: 청소년기의 질병반응은 성인 행동으로부터 어릴때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한다. 신체적으로는 아들이라기 보다는 성인에 더 가까우면서도 질환과 입원이라는 놀랄만한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다른 시기보다 더욱 극적으로 퇴행이 일어나 유아와 같이 행동하려 한다. 또한 자율감이 형성되는 유아와 같이 모든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여 요구와 질문과 변덕이 많고 동요가 심한 환자로 보인다. 16~18세경 정도의 입원한 남자 청소년은 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성적충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질환자체, 신체기능 조절의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신체를 노출시킨 간호절차로 인해 주체성에 혼란을 가져온다.

적절한 간호중재: 청소년 환자를 간호할때 먼저 Erikson의 발달단계에서 아동기까지의 중심과업인 신뢰감, 자율감, 솔선감, 근면감의 성취여부에 대해 단계별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성취정도를 파악한 후에는 각각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환자에게 신뢰감을 갖게하며, 자율감을 확인하여 환자 스스로 질병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또 간호원이 그들을 아끼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신을 조절하도록 도와준다. 일단 환자로 부터 신뢰와 협조를 얻게되면 환자-간호원의 관계형성에 시간이 적게 들고 실제 간호를 할수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갖게될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원이 여성이므로 청년기 남자환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될 때 성적인 충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환자가 질환자체나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신체기능상실로 인해 주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는 간호원이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못하

거나 환자의 요구가 무엇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때 더 문제가 된다. 이때 간호원의 감정이입으로 환자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지지하고, 강화시켜 주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질병반응을 고려한 간호중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 발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지해 주는것이다. 16세된 포피절개술(Circumcision) 환자의 예를 들어보자. 이 환자의 반응과 그에따른 간호중재는 아래와 같다.

○ 환자는 수술을 원하는 부모와 의사의 권위에 대항한다.—〈간호중재〉 이것은 자율감에 대한 요구이다. 먼저 신뢰감을 갖게 한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여 협조를 얻는다.

○ 새롭고 강한 생리욕구와 더불어 성적충동이 일어난다.—〈간호중재〉 간호원이 그 환자를 대할때 가능한 한 신체가 닿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이 기회에 부모로 하여금 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권유한다.

○ 수술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며, 환부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크게 불쾌해 하고 우려한다.—〈간호중재〉 프라이버시 침해나 노출로 인해 주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이때는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확인한다.

○ 성적충동과 이성애에 대한 관심의 집중으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한다.—〈간호중재〉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성적 성숙으로 자아 체제가 통합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다.

즉 포피절개술을 받은 이 환자의 간호에서 간호의 목표를 주체성 확립에 두고, 환자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여 성인의 신체상을 통합하도록 도와준다.

이상과 같이 간단한 예를 들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간호원은 인간의 발달을 더 이해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전인적이고 과학적인 간호를 할수있다. 즉 「각 환자는 사회의 일원이고 그들은 보다 낮고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위한

지면보수교육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 또한 각 환자는 자신의 유전적 자질, 과거와 현재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병리적인 변화를 겪는 인간이다]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여 질병반응을 예측하고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한다. 청소년 간호의 초점은 주제성 확립을 위해 지지하고 돕는데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 졌다.

<참 고 문 헌>

1. Jane Frances Ronan, The Relationship of Illness to the Maturational Level of the Individual pp.385~399.
2. Grace, J. Craig, Human Development, Prentice-Hall, 1976, pp.401~430.
3. 정인석, 현대 청년발달심리학, 재동문화사, 1977, p.59, p.302.
4. 박예숙, 인간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수문사, pp.134~143.
5. 박문희 외 3인, 아동간호학, 수문사, 1983, pp.201~225.

<25페이지에서 계속>

지면보수교육

주어야한다. 또 나이를 먹어감에따라 신체의 각 부분에 노화현상이 일어나게되는데 당뇨병의 조절이 잘 되지않으면 동맥경화증이 쉽게 올 수 있으므로 합병증예방에도 관심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성인기 후기에 있어,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는 시기가 오는데 당뇨병으로인한 생활패턴의 변화에 이러한 것이 겹치게되고 더 나아가서 몇 년기까지 경험하게되면 환자가 받는 심리적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의 올바른 관리가 방해 받을 수 있으므로 변화된 역할을 잘 받아들이고 과거의 부모로서 가졌다. 역할은 폐기하도록 하는등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도록 하며 변화된 환경에 서서히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지않으면 생산기의 긍정적요소는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 요소인 자기흡수로 인해 환자는 침체하게 된다.

따라서, 당뇨병은 완치되지는 않지만, 자가간

호와 치료를 꾸준히 하게되면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갈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한 변화된 역할을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가족과 그의 동료로 하여금 함께 치료에 동참하여 도울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여 함께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본다.

<참 고 문 헌>

1. Irene L. Beleand & Joyce Y. Passos, Clinical Nursing, Macmillan, 1975.
2. Luckmann & Sorensen, Medical-Surgical Nursing, Saunders, 1980.
3. Mary Topalis & Donna C. Aguilera, Psychiatric Nursing, Mosby, 1978.
4. 박예숙, 인간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수문사, 1983.